

대불련 50돌 코 앞인데... 동문은 '이전투구'

대불련 50주년 사업 파행 논란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의 기념사업이 동문 간의 갈등으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대불련 총동문회(회장 원유자, 이하 총동문회)는 "7월 5일 제2차 이사회를 열고 현행 대불련 5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8일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밝혔다. 또한 50주년 기념사업회 측에 "제작 중인 브로셔 등에서 총동문회 소속 모든 회원 명단을 제외하고, 동문 회원들에게는 조정장 발송여부 문의 전화도 일체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총동문회장 선출 과정에서 후보 간 자격시비가 불거졌고, 결국 일부 동문들은 4월 27일 전국동문회라는 별도 조직을 만들었다.

- 총동문회, 사업 불참 토보
- 50주년 행사도 따로 기획
- 전국 동문회만 사업 참여
- 2월 동문회장 선거 이후
- 두 회로 갈려 대립각 세워
- 동문 분열이 사업 파행으로
- 애꿎은 현역 학생들만 상처

전국동문회가 출범하면서 동문 간의 갈등은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장을 놓고 이어졌다. 기념사업회 측은 6월 17일 총동문회와 전국동문회 양측 회장에 공동추진

위원장을 제안했지만, 이를 수락한 것은 전국동문회만이였다. 이에 기념사업회 측은 6월 28일 홍종표 전국동문회장을 공동 추진위원장에 위촉한다는 공고를 냈다. 총동문회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7월 4일 대불련 현 집행부, 총동문회, 전국동문회, 기념사업회의 '4자 회의'를 제안해 회의가 열렸지만 의견이 갈려 별 성과없이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원유자 총동문회장은 본지와 의 전화통화에서 "5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위원장은 본래 총동문회장과 현역 회장으로서 규정돼 있지만, 4월 전국동문회가 만들어지고 3명의 추진위원장이 될 상황이였다. 이는 동문의 분열로 비춰질 수 있어 반대했다"며 "조율이 안돼 결국 재학생들이 단독 주관하고 동문들은 후원하는 방안도 제안했지만 이 역시 무산됐다. 결국 사업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홍종표 전국동문회장은 "50주년 사업을 위해 전국동문회 측도 2천만 원을 약속하는 등 최대한 노력을 해왔다"며 "엄연한 동문을 배제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3자 추진위원장 선임은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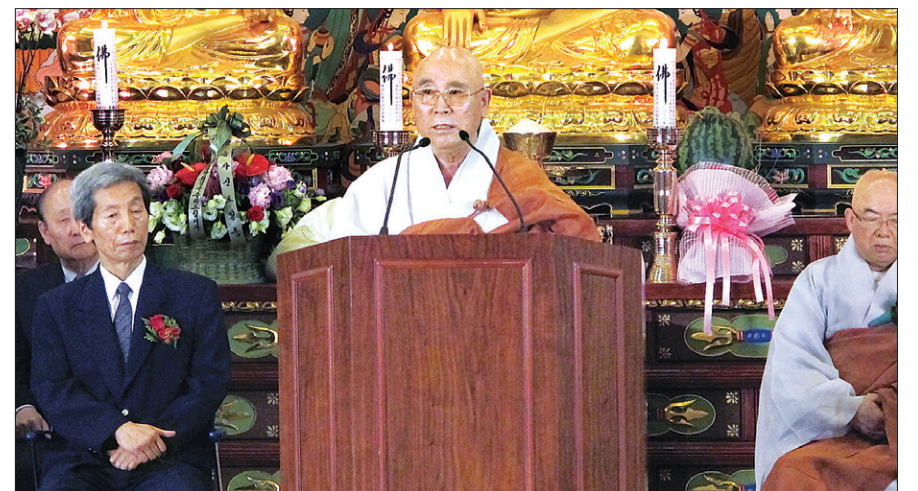
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양측 동문이 '이전투구'를 하고 있는 동안 애꿎은 대불련 현역 집행부와 실무진만 마음고생 중이다. 실제 박지연 대불련 중앙회장과 2000년대 중앙회장 동문들은 선배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지만 사태는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홍지연 대불련 지도위원장은 "총동문회가 50주년 기념사업에 불참하고 9월에 단독으로 행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동문회 분열이 대학생 분열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며 "남감하지만 현재 50주년 기념사업은 전국동문회와 대불련 2인 공동체로 준비하고 있다. 어찌 됐던 문제가 잘 수습이 돼 8월 17일 이전에 총동문회와의 갈등이 해결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지연 회장이 "동문회 내부 갈등은 동문회 안에서 정리돼야 한다. 현역 대불련 재학생들이 대서야 할 문제가 아니다"며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여름캠프를 잘 준비해 재학생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려 한다"고 말했다.

신종일 · 이너는 기자



불교방송 6대 이사장으로 선임된 종하 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이 7월 10일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취임법회를 가졌다.

“최첨단 구세대비 매체 만들겠다”

불교방송 6대 이사장 종하 스님 취임

“이제 그만 모든 잡음, 분규를 멈출 때가 됐습니다. 이제 그만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불교방송 6대 이사장으로 선임된 종하 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이 7월 10일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취임법회를 갖고 임직원들에게 성찰과 화합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밀운, 암도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혜승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조계종 총회의 원 장석 스님 등이 참석했다. 또한 국회의원 정갑승 의원(정각회 회장), 김규철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이재원 불교방송 사장, 엄상호 이사, 이수덕 이사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종하 스님은 지난 불교방송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스님은 “지난 일련의 사태들은 비판받아 마땅한 방송매체로 (불교방송이) 전략적 의미를 잃어갈까 우려된다. 그러나 방송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불교방송이 종하 스님의 취임으로 세계적 방송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규철 불교진흥원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종하 스님께서 이사장 취임으로 어려운 과제를 맡게 되었다. 불교방송의 역할을 한 차원 높여달라”며 당부했다.

한편, 불교방송 신임 이사장 종하 스님은 1959년 해인사에서 고봉 스님을 은사하고 말았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야 하며, 우리부터 변화해야 합니다”라며 직원들에게 제자리로 돌아가 각자의 임무에 충실한 것을 강조했다.

정혜속 기자

청년들, 내려놓고 바라보다

조계종 청년출가학교 6월 30일부터 미항사서

“켜켜이 쌓아온 가슴속 돌덩이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청년출가학교(이하 청출)가 열리지 일주일째 되는 날, 한 참가자가 이렇게 말했다. 스무 해 넘게 마음 속에 높이 쌓아두기만 했던 돌덩이 우르르 부서져 내렸다.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전남 해남군 미항사에서 '내려놓고 바라보다'란 주제로 열린 청년출가학교에 지도법사로 참여한 원영 스님(조계종 교수사리)은 참가자들 대다수가 이처럼 스스로의 무게 때문에 답답해하는 이들이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출가가 삶의 새로운 대안임을 제시하고 젊은 세대에게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해 개설한 청년출가학교가 올해는 한층 더 정제된 모습으로 젊은이들과 만났다. 취업난, 학업난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을 위해 고민상담가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청출은 삶의 방향을 정비하고 싶은 20대 청년을 선발해 정목 스님, 도법 스님, 강신주 박사 등 스터디 강사진들의 강의로 함께 그들의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새벽예불은 물론 율려, 참선, 숲길걷기와 수행일기쓰기, 소담법문 경청 등도

함께였다.

청년출가학교장 법인 스님은 “사회 속의 불교라는 기치아래 청년들이 스스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불교의 자선, 교리, 수행 문화 등을 적극 활용하려고 했다”며 커리큘럼도 작년에 비해 인문학 강의가 보강됐고, 스님과 대화하는 상담시간 또한 늘어났음을 밝혔다. 스님은 “인문적 사유가 결코 불교적 이해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이러한 강의를 통해 보편적으로 옳은 길과 불교의 관계를 보여주려 했다”고 전했다.

이들 뒷받침하듯 참가자들에게 호응이 좋았던 강의 중 하나도 철학자 강신주 교수가 진행한 ‘철학, 삶을 만나다’였다. 강 교수는 강의에서 젊은층에게 경험의 전수를 강조하며 그를 통해 세계관을 넓혀볼 것을 주문했다.

대학생 황수민 씨(21.부산대학교 사회 복지학과) 또한 “강신주 교수님이 말씀하신 진지(眞知), ‘내가 진실로 하는 것은 온몸으로 체험해야 아는 것이다’ 라는 말이 가장 와닿았다”며 “혼란스러움을 정리하고 덕분에 좋아하는 일을 시도할 용기가 생겼다”고 했다. 청출에 참가한 후로



조계종 청년출가학교가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해남 미항사에서 열렸다.

마음의 평가가 우선 충족됐음은 물론이다.

총 84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43명은 지난해에 비해 더 진지해졌다는 반응이다. 청출 지원동기가 담긴 자기소개서가 선발 기준이었던 만큼 행사선발이 어려웠다는 후문도 들렸다. 개중에는 실제로 출가를 고민하는 지원자들도 있어 1명은 이미 출가사를 밝히기도 했다. 김좌일(29)씨는 “9년 동안 고민하던 결 5일 만에 결정할 수 있었다”며 “스님들을 보고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출가를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다른 참가자들 또한 내면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자신의 내

밀한 이야기를 들어준 스님들에게 고마워했다.

9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회향식을 가진 참가자들은 “여기서 배워간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희석될까봐 우려하는 표정을 보이기도 했다.”

법인 스님은 회향사에서 세상 속에서 출가할 2기 청자들에게 “회향이란 끝이 아니라 결실을 맺고 다시 씨를 뿌리고 가꾸는 과정의 반복”이라며 “시작 속에 결과가 담겨있음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청년출가학교 행자를 덕분에 스스로 불교 수행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해 주셔서 고맙다고 전했다.

해남 미항사=배현진 기자

사랑의 교회 “주민소송 대상 될 수 없다”

서초구민들 패소...황일근 의원 등 주민대표 항소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과 건축허가 취소'가 주민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부장판사 송우철)는 7월 9일 황일근 의원 등 서초구민 6명이 서초동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점용과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을 인용, “주민소송제도의 입법 목적과 취지는 지방 재정의 적정성 확보에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로점용허가 및 건축

허가는 도로행정 및 건축행정 상의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일 뿐, 지자체 소유 재산에 대해 재산적 가치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주민대표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일근 서초구 의원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우리나라 법원의 심장부인 대법원 앞 공공도로 지하를 불법적으로 점용해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법치주의를 무용하는 행위를 눈 가리고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정혜속 기자

碧巖錄

전 5권

화두 참구의 길잡이! 깨달음의 길을 찾는 이들을 위한 선 수행의 필독서! 드디어 5년 만에 재간되다!

원문에 토를 달고 번역하고 주와 해설을 붙인

벽암록 완역판

공안집의 최고봉, 선종문화의 총결산 《벽암록》, 최초의 완역본! 석지현의 명쾌한 해설로 만나다.

■ 원옥근 저 · 석지현 역주 해설
신국판 | 145,000원(세트)



석지현 역주 해설본 《벽암록》의 특징

- ① 국내 최초 《벽암록》 완역 해설본!
- ② 수시·분칙·착어·평창·송·송죽어·송평창을 모두 번역하고 해설한 책!
- ③ 벽암록 전문(全文)의 원문 수록과 현대 작업 완료!
- ④ 벽암록 네 개의 이본(異本) 대조!
- ⑤ 벽암록 100칙 공안 하나하나마다 활구(活句, 참구할 부분)와 사구(死句, 이해할 부분)를 일일이 구분하여 제시한 책!
- ⑥ 장장 10년에 걸친 역주 작업, 출판기간 3년!
- ⑦ 벽암록 속어 낱말사전 완성!

8월 초 출간 예정!

무비 스님의 《서장-이것이 간화선이다》

(벽암록)과 함께 간화선 교과서의 생애이라 할 수 있는 《서장》, 무비 스님의 강설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8월 초 출간 예정! 예약판매 중, 사전 예약 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더운 여름, 마음의 휴식을 주는 책을 선물하세요.



檀訶 허공을 삼키다

시대의 선각자 탄허 큰스님의 생애와 오대산 불교 이야기

■ 지현 스님 지음 | 264쪽 | 13,500원 | 무선(신국판)
생애가 흥미도 띄워지지 않는 탄허 큰스님의 가르침 그리고 스님을 품은 오대산 불교 이야기 (탄허 허공을 삼키다)는 스님의 원력과 가르침, 업적을 되살려 미래의 꿈과 과제로서 한국불교 발전의 방향으로서 삼을 수 있는 내침반과도 같은 책이다. 스님의 생애와 시대정신과 함께 오대산의 역사와 문화도 소개하고 있어 탄허 스님이라는 큰 그릇을 품을 수 있었던 오대산의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타니피타를 읽는 즐거움

보경 스님의 친절한 해설

■ 보경 스님 지음 | 376쪽 | 15,000원 | 무선(신국판)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이 담긴 한 구절 한 구절이 삶의 지혜와 지식을 열어 준다. 소박하고 쉬운 일상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 종교를 뛰어넘어 모두의 가슴에 깊이 와 닿는 지리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최초의 불교경전 《수타니피타》, 《수타니피타》 원전을 통해서 근본적인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고, 보경 스님의 친절하고 자상한 해설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갈 힘을 충전하게 될 것이다.



버리고, 비우고, 낮추기

무아 · 무심 · 하심의 행복론

■ 정승석 지음 | 232쪽 | 10,800원 | 무선(4×6판)
행복의 법칙! 무아 · 무심 · 하심, 나를 버리면 정말 행복해진다? 우리는 무지 때문에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으로 착각하여 그것을 얻고자 노력한다. 버리는 것이 많을수록, 버리는 강도가 클수록 행복감은 줄어든다. 그렇다면 행복의 비결도 간단하다. 버리는 것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다. 《버리고, 비우고, 낮추기》 무아 · 무심 · 하심의 행복론은 부처님 말씀에 근거하여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나를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면 어떻게 행복해지는지 다양한 실례를 들어 일깨워 주고 있다.